

가정예배에 힘쓰는 교회와 가정을 찾습니다

도서출판kmc는 ‘가정예배 회복운동’을
전개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한 가정 회복,
교회 부흥에 힘쓰는 교회와 가정을 찾아
모범으로 삼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자격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힘쓰는 교회와 가정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응모 마감	4월 26일(월)
격려와 시상	5월 18일(화)
문의	소속 연회 및 도서출판kmc TEL 02-399-4385, 4355

[자세히 보기](#)

도서출판 **kmc**
The kmc press

1. 가정예배에 힘쓰는 교회 공모

- 신청 자격 : 목회의 중점사역으로 가정예배를 통한 가정회복에 힘써온 교회
- 신청 방법 : 소속 연회에 공모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와 함께 활동 자료(사진이나 동영상, 설명글) 제출 → 신청한 교회들 중 연회가 선별해 추천(연회별 2교회)
- 자료 제출 마감 : 4월 26일(월)
- 수상교회 선정 : 5월 6일(목) - 주관 도서출판kmc
 - * 연회가 추천한 교회들 중 최종 3교회 선정
- 격려 및 시상 : 5월 18일(화) 본부교회
 - * 특전 - 도서상품권(100만 원), '가정예배 모범교회' 현판 증정
월간 <기독교세계>에 기사화 및 1회 무료 광고 게재
- 문의 : 소속 연회 및 도서출판kmc ☎ 02-399-4385, 4355

2. 가정예배에 힘쓰는 가정 공모

- 신청 자격 :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는 가정
- 신청 방법 : 도서출판kmc에 공모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진(동영상)과 설명글 제출/ kmc-sky@hanmail.net
- 자료 제출 마감 : 4월 26일(월)
- 수상가정 선정 : 5월 6일(목) - 주관 도서출판kmc
 - * 응모한 가정들 중 최종 7가정 선정
- 격려 및 시상 : 5월 18일(화) 본부교회
 - * 특전 - 도서상품권(30만 원), '가정예배 모범가정' 선정패 증정
월간 <기독교세계>에 기사화
- 문의 : 도서출판kmc ☎ 02-399-4385, 4355

가정예배 회복운동(A Family Worship Recovery Campaign)에 동참합시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많은 국민들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상황이 여전히 만만치 않음을 인식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마다 가정마다 위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리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가정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가정예배를 강조했고 목회의 중심에 가정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매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며 사람들이 바빠지면서, 언제부터인가 가정예배가 소홀해지고 말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가정생활에 뿌리를 내린 종교만이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부흥은 속히 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스펀전도 “가정예배를 통해 안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하겠다. 가정예배는 경건의 도구이다.” 라며 가정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점이 가정예배를 회복해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의 위기를 돌파하며 감리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기회임을 확신합니다.

- 1) 가정예배는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 2)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이 선포되는 가정신앙회복의 통로입니다.
- 3) 가정예배는 신앙의 계보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디딤돌입니다.

사랑하는 감리회 성도여러분,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가정예배 회복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로 인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감독회장과 12개 연회 감독은 도서출판kmc가 전개하는 ‘가정예배 회복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 운동이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가정들에 확산되어지도록 연회차원에서도 힘껏 돕고 함께 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이철 감독회장, 12개 연회 감독

